

독일 정치학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과정: 대학제도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 수 영 | 서울대학교

전통적으로 독일에서 정치학적 연구주제들은 주로 법학, 철학, 역사학, 사회학에서 다루어졌다. 독립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하에 독일대학에 도입되었다.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학의 갑작스런 출현은 학자들 간의 논쟁과 알력을 초래하였다. 1950년대의 정치학의 독일어 번역을 둘러싼 논란과 경험적, 서술적 연구정향과 철학적, 규범적 연구정향 간의 대립, 미국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등장한 정치학의 행태주의적, 과학주의적 연구정향을 둘러싼 70년대의 정치학 방법론 논쟁은 그 예이다.

정치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학문인 정치학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방법론적 논쟁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다. 독일의 정치적 변화와 이에 따른 대학제도의 변화는 정치학이 지녀야 할 특성과 타학문과의 관련성, 정치학의 방법론적 근거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 진행 중인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대학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인 통합적, 철학적 연구정향과 경험주의적, 전문화된 사회과학화의 연구정향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오늘날 독일 정치학은 새로운 위상정립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 정치학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독일 정치학, 미국 정치학, 정치학의 정체성, 세계화, 대학제도의 변화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1-B00008).

I. 머리말: 연구의 의의와 대상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치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 주목하는 것은 독일과 한국의 역사와 정치학 발달과정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며, 이점에서 독일 정치학의 역사는 한국 정치학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 미군정을 경험하였고 미국의 영향 아래서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은 양국에 수입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분단국가로서 정치학의 이념적 논쟁을 경험하였으며, 현재 세계화의 압력 하에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수입된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은 독일의 전통적 정치학 연구방법과 학제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독일의 학문전통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철학, 법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국가학적(*Staatswissenschaft*) 전통이 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정치학은 1954년에 가서야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수입 학문으로서 정치학은 정치학의 독일어 번역문제로부터 시작된 논쟁으로부터 전통적인 정치학 연구방법인 규범적, 철학적 연구와 새로운 경험적 연구 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대학제도의 변화에서 추동된 70년대의 정치학 방법론 논쟁으로까지 이어진다. 70년대의 논쟁은 과거와 달리 보수적, 진보적 정치학 간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논쟁이었다. 독일 정치학의 방법론과 정체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결국 1983년 학회의 분립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는 EU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입각한 대학제도의 개혁은 독일 정치학의 또 다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¹⁾

독일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은 유사한 경로를 밟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학의 발전과정은 구한말의 정치학의 전사(前史)시기, 모색기(1953~70), 제도

1)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지금까지의 유럽 대학제도 개혁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Der Bologna-Prozess," www.bmbf.de/de/3336.php를 참조. 볼로냐 프로세스의 내용에 대한 개요는 3.3장에서 후술함.

화기(1971~1979), 민주주의기(1980~1991), 포스트 민주주의기(1992~) 5기로 나눌 수 있다(손호철 2006, 103-124). 독일 정치학의 경우 2차 대전 이전의 시기까지의 전사(前史), 50년대의 정치학의 수입과 모색기, 60~80년대 제도적 확립과 이념적 분화, 90년대 이후의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대학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양국의 정치학의 발전과정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일제에 의한 과거의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강제적인 분리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미국의 영향 아래 수입된 정치학이 초래한 전통과의 단절은 독일보다 훨씬 격렬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적 정치학과 근대 정치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대로의 자체적인 이행을 성취한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며,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²⁾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독일의 경우 정치학의 이념적 분화가 68운동을 기점으로 60~70년대 진행되었고, 정치적, 제도적, 방법론적 차이가 학회의 전문화 경향과 더불어 학회의 분립, 학파와 학풍의 형성으로 이어진 반면 한국의 경우 87년을 기점으로 이념적 분화가 진행된 점, 그리고 학회의 분립이 전문화와 지역화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

본 논문은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정치학의 역사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독일 대학제도 변화의 관계를 한국 정치학계에 소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독일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제한적인 비교연구, 논문의 성격상 이론적 분석보다는 서술적 소개의 성격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⁴⁾ 본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방법론, 정체성 논쟁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정치학에 대한 학문적 성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⁵⁾ 특히 전통적인 독일 학

2) 구한말 유길준과 현채에 의한 서구 정치학의 소개는 한국 정치학의 前史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근대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등장은 1946년 서울대 정치학과와 설립부터라 할 수 있다(김계수 1987, 4).

3) 진보적 소장학자들에 의해 1987년 결성된 '한국정치연구회'를 정치적, 제도적, 방법론적 차이에 기초한 학회의 분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연구회를 기존학회에 비교해 볼 때, 90년대 중반 진보정치 이념의 쇠퇴 이후 특히, 그 영향력과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본문에서 제외하였다.

4) 이러한 한계는 필자의 능력의 한계와 지면상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5) 연구경향의 소개는 결론에서 후술함.

풍과 수입된 신학문으로서 정치학을 둘러싼 독일 학자들의 논쟁과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학제도 개혁에 대한 방법론적, 철학적 논쟁은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 수립과 학회, 대학교, 연구기관을 비롯한 고등연구 기관들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지적 반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독일 정치학의 前史

1. 18세기까지의 정치학적 전통

독일에서 정치학적 전통은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적 저작까지 소급될 수 있다. 물론 독일이라는 민족국가는 19세기에 비로소 등장한 현상이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독일 정치학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의 사상은 독일 정치학의 전사(前史)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중세의 제후들이 중심이 된 정치권력은 국가적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어떤 조화로운 통일성 속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치학은 이러한 권력자들의 올바른 직무수행의 충고자로서 적법한 권력행사에 대한 이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제후와 그들의 후계자들의 교육서(Fürstenspiegel-Literatur) 역할을 정치학이 주로 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키프로스 왕에게 헌정한 저작 *De regno ad regem Cypri*(키프로스 왕국의 통치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교육서로서 정치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졌다. 첫째 분야는 적법한 통치에 대한 이론적 모델이었고, 둘째 분야는 올바른 지도자의 이상적 모델에 관한 역사적 예들이었다.⁶⁾

중세의 정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재평가 및 부활과 관련이 깊다. 아리스

6) 제후교육서(Fürstenspiegel-Literatur)로서 정치적 문헌의 저작의 예는 다음과 같다. Reinhard Lorch(?~1556), Wolfgang Seidel(?~1633), Jacob Omphalius(?~1570), Konrad Heresbach(1496~1576), Martin Moller(1463~1477), Franciscus Husmanus, Georg Engelhard von Löhneyß(?~1624), Wilhelm Adolf von Feist.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토텔레스의 저작들은 11세기 후반 이후부터 설립된 유럽의 대학들에서 강의의 일반적인 표준이 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마그누스(A. Magnus)와 파리와 쾰른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가르쳤던 아퀴나스에 의해 서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⁷⁾ 아퀴나스는 중세기 동안 무시되었던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적 국가론, 통치론과 결합시켰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정치적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퀴나스는 정치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부과했다.⁸⁾ 정치는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된 필요악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부정적 관점을 넘어 정치는 인간사회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해되었다(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2006, 47-51).⁹⁾

- 7)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벨기에의 도미니크회 수도사 Wilhelm von Moerbeke (1215~1282)에 의해서 최초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비롯한 당시에 입수된 전체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4세기에 드디어 대학에서 정치학은 독립적 과목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직업적 학문으로서는 아니었다. 직업 지향적 정치학은 이후 관료제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 8)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근대 정치학의 역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학자인 프란시스 쉐퍼는 아퀴나스 사상이 갖는 근대성을 은총의 영역에 대한 자연의 잠식으로 파악한다. 아퀴나스는 정치를 은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시발점을 열었다(쉐퍼 1997, 17-18).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아퀴나스에 반대하여 다시 아우구스티누스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루터는 정치세계에서의 인간의 성향은 동물적 충동과 자연적 행동으로 향한다고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관을 비판하였다(스트라우스·크랍시 2007, 28). 아퀴나스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상적으로 근대성의 여명을 여는 역할을 하였다. 즉 스콜라 철학의 대가 아퀴나스는 르네상스로 가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활은 이 길을 향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9) Münkler의 아퀴나스 정치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서술은 서유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슬람 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시여겼던 네스토리우스교파인 시리아인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출간한 Kindi와(873년경 사망),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유럽 전승에 대한 Ibn Sina(980~1037)와 Ibn Rushd(1126~1198)의 분명한 공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를 Magnus와 Aquinas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러셀 1995, 573-580). 이슬람 사상가들의 영향력에 대한 서술은 이슬람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 유럽의 근대를 전인한 르네상스 운동에 이슬람

15세기 후반 무렵의 종교적 분열, 세속화,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영향력은 정치학에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였다. 새로이 등장한 정치학적 테마는 권력과 지배, 국가와 주권, 안전과 지배 등이었다. 지배질서, 자연법에 기반한 국가이전 상태의 시민권, 영적 질서와 세속적 질서의 역할관계, 저항권이 주요 질문대상이었다. 독일 전통에서는 알투스우스, 프랑스에서는 보댕, 네덜란드에서는 그로티우스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다른 한편 정치적 자문도 정치학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제후교육서의 저자들과 달리 새로운 충고자들은 지배자의 덕을 우선시하는 대신 지배의 안정성과 국가의 번영을 우선시하였다. 당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중시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신학과 도덕철학으로부터 정치론을 해방시켰다. 16, 17세기의 마키아벨리즘의 성공은 마키아벨리를 권력의 기술자로 해독함에 있었다. 제후의 조언자들은 국가형성에 있어서 폭력의 집중을 목표로 하였고, 또한 국가이성이라는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도 마키아벨리처럼 권력-기술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콘링(H. Conring)과 알투스우스가 마키아벨리의 전통에 속한다. 알투스우스는 1614년 출간된 저서 *Die Politik. Eine methodische Darstellung mit heiligen und weltlichen Beispielen illustriert*(정치: 성스러운 예, 세속적 예를 통한 방법론적 서술)에서 정치론을 인간을 세우고, 돌보며, 공동체적 삶의 보존으로 인도하는 기술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에 필수 불가결하고도 유용한 것을 보증하는 기술로서 정의한다. 이런 공동체적 삶의 보증이 국가이며, 국가는 주권, 명령권, 최고 판결권, 입법행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정치론을 기술로서 도구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알투스우스의 정치에 대한 관점은 마키아벨리와 함께 근대적 정치관을 공유한다. 그러나 전자는 마키아벨리와 달리 주권을 배타적으로 인민(Volk)에게 있다고 본점에서 후자와 차이를 보인다. 마키아벨리의 전통은 또한 제국의 헌법을 새로운 주권론의 관점에서 다른 일련의 시도로 이어진다. 주권론과 국가형태론에 대한 이론을 현실과 제국헌법의 역사적 전개와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범죄와 형법학, 검열정치, 교회정치, 종교정치, 행정, 조세권, 재정학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런 변화는 전

의 영향력을 서술함으로써 양 문명 간의 갈등이나 불필요한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시민의 상당수가 이슬람 이민자들로인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통적인 대학의 정치교육 시스템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옹호자들에게 제후들의 필수적인 고문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등장하기 시작한 영토국가에서 비중이 높아진 관료제(Beamtentum)의 성공적인 동기부여자가 되었다. 재정학, 가정경제학, 정책학이 새로이 대학에 등장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학적 주제인 좋은 질서에 대한 논의들은 점점 물러나게 되었고, 중상주의 교본들이 광범하게 등장하게 되었다.¹⁰⁾ 18세기 중엽에는 국가학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중상주의적 학문과 정책학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은 근대국가 개념의 전개과정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¹¹⁾

2. 보수주의 정치학과 자유주의 정치학의 대결: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 시기

18세기 말엽 독일 대학은 재정적 이유에서 전체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게 되는 위기를 맞는다. 예를 들면 쾰른대학은 1798년에, 에어푸르트 대학은 1817년에 폐교된다. 특히 프로이센에서 프랑스의 점령을 전후한 이 시기, 대학들은 보다 분명한 정치적 가치를 띠게 된다. 즉 정치적, 경제적 국가재건을 위한 기초를 통치구조의 변혁을 통하여 다지고자 한 것이다. 대학개혁이 중시된 것은 이런 맥락이었고,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국가와 사회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 교육엘리트의 육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훔볼트(W. v. Humboldt)이다. 그의 보편적이고 일반적 교육이라는 이상은 일방적으로 실습과 전문화에 기울어진 국가학적 교육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는 전문적 지식과 관련된 직업적 연구와 대비하여 학적 진리를 향한 비목적적인 연구와 강의의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을 *Über die innere und äußere Organiz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10) 대표적 학자로서는 Heinrich Gottlob von Justi(1720~1771), Georg Heinrich Zincke(1692~1769), Joseph von Sonnenfels(1733~1817) 등이 있다(Münkler 2006, 20).

11)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 대한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다. Münkler 2006, 13-53; Berg-Schlosser and Stammen 2003, 14-20; Frantz and Schubert 2005, 13-24; Mols, Lauth and Wagner 2006, 40-47; Wilhelm Bleek, 2001. *Geschichte der Politikwissenschaft in Deutschland*; Jürgen Hartmann, 2003. *Geschichte der Politikwissenschaft: Grundzüge der Fachentwicklung in den USA und in Europa*; Gerhard Göhler · Bodo Zeuner, eds. 1991. *Kontinuitäten und Brüche in der deutschen Politikwissenschaft*.

Anstalten in Berlin(베를린 고등교육 기관의 내적 외적 조직에 대하여)에서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정치학적 교의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지향하는 절대주의적, 공리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정책지향적인 중상주의적 교육은 프로이센의 개혁가들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관료적 통치술과의 관련성에 점차 거리를 두면서 이들은 국가, 경제, 사회에 대한 일반적 교의를 세우고자 시도하였다.¹²⁾ 이는 개혁가들의 뉴휴머니즘적인 교육이상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 프로이센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프로이센에서 입법자로서의 의회는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통치관료들에게 입법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들은 정치가로서(*Staatsmann*) 전문영역을 넘어 국가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정치학은 19세기 초 독일 대학에서 교과과정에서 분명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공동체적 존재의 좋은 질서라는 고래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들은 중심적인 위치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다. 대신에 개혁중인 국가의 헌법과 개혁가들이 헌법과 더불어 국가의 법적, 관습적, 도덕적 기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19세기의 정치학은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정치철학, 법학과 국가학, 그리고 역사학적 정치학이다. 정치철학에는 헤겔의 영향력이 지대했다.¹³⁾ 그의 개인, 사회, 국가에 대한 개념은 다가오는 10년을 특징지었다. 두 번째의 전통에는 로텍(K. v. Rotteck)이 대표적이다. 그는 그의 저서 *Lehrbuch des Vernunftrechts und der Staatswissenschaft*(이성법과 국가학 교재)에서 입헌 군주제의 구성, 자유주의적 입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상류계급 의회형태(*Landstände*)인 인민대의제를 설정한다. 세 번째의 전통에는 *Die Politik auf den Grund und das Maß der gegebenen Zustände zurückgeführt*(근원과 현실의 관점에서 본 정치)의 저자 달만(F. C. Dahlmann)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 역사적 국면에서 헌법형태로서의 입헌 군주제는 고대 게르만적인 인민의 자유와 중세적인 귀족과 왕의 지배, 근대적 국가개념이 통일된 것이다. 이것은 군주와 양원제 시스템에 의한 집행권과 입법권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정치적

12) Karl Reichsfreiherr vom und zum Stein(1757~1831), Karl August Fürst von Hardenberg(1750~1822), Wilhelm von Humboldt 등이 그 예이다.

13) 헤겔 이외에도 Friedrich Schleiermacher(1768~1834), Hermann Friedrich Wilhelm Hinrichs(1794~1861), Arnold Ruge(1802~1880)를 들 수 있다.

결정은 보다 효과적이게, 변화는 보다 느리게, 정치적 악화를 좀더 회피하게 하여 왕에 의한 자체적인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상원은 귀족들의 대표체로서 영구적이며, 세습적이다. 하원은 선거로 뽑히며, 다양한 공동체들의 대표체이다. 여기에 지도적 국가공직자와 정부 장관들의 중요한 지위가 부가된다. 이들은 왕의 모든 서류에 대한 부서권(副署權)과 법적 탄핵권을 갖는다.

이러한 절제된 자유주의적 정치이론들과 달리 계몽주의의 철학적 유산에 반대하고 사회질서의 급진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국가이론가들이 있다.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적 경향에 반하여 이들은 전통, 역사, 종교의 힘을 중시하며, 계획 가능한 진보에 반해 유기체적인 성장을 강조한다. 정치적 낭만주의자인 뮐러(A. Müller)와 슈탈(F. J. Stahl)이 그 예이다.¹⁴⁾

개혁사상가들은 반동적인 복고주의 경향도 혁명적인 전복의 열정도 거부하였다. 정치적 실천과 보다 강화된 결합을 한 정치학은 새로운 차원에서 설정되었으며, 이는 보다 복고적인 국가관청의 계획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1837년 11월 1일 하노버(E. A. v. Hannover) 왕은 헌법정지, 의회해산, 공직자들의 국가기본법에 대한 선서금지를 칙서를 통해 발표했다. 괴팅겐의 7명의 교수들은¹⁵⁾ 이러한 군주의 자의성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은 이들이 더 이상 신분의 대표가 아닌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조직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이들은 교수의 강화된 자기의식을 드러낸다. 제후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복종하지 않는 교수들은 실직했고, 일부는 추방되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학과 더불어

14)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대립한다. 후자가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 자연법에 기초한 계약과 합의, 합의의 주체로서 국가보다 개인의 우위를 강조하는 반면 전자는 정념으로서 이성비판과 자연법 비판, 허구로서의 계약과 합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합의에 따른 의무와 구분되는 복종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법적 이성에 기초한 개인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습과 전통의 산물인 것이다. 보수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국영(1999, 48-51), 양승태(1995, 13-26), 로버트 니스벳·C. B. 맥퍼슨(1997, 95-162), 자유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983, 82-86, 110), 유홍립(2003, 81-117) 참조.

15) 7인의 괴팅겐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Friedrich Christoph Dahlmann(1785~1860), Wilhelm Eduard Albrecht(1800~1876), Jacob Grimm(1771~1851), Wilhelm Grimm(1786~1859), Georg Gottfried Gervinus, Heinrich Ewald(1803~1875), Wilhelm Weber(1804~1891)이다.

어 직업으로서, 교수로서 정치학자 그룹이 대학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은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띤 정치학 교수들에 의해서였다. 이들의 정치적 활동은 1848년 초 헌법을 제정한 국민회의, 즉 '바울교회 의회'에서의 선거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바울교회 의회의 대표였던 교수 50여 명은 퇴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적 활동을 중지한 것은 아니었다. 달만, 몰(R. v. Mohl), 라우머(G. W. Raumer) 같은 과거의 대표자들은 1849년 고타에서 모여 프로이센 국민국가 연합을 논의하였고, 이 통일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때에도 상당수의 교수들은 각국의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바울교회 의회의 해산 이후 또 다른 많은 정치학 교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험의 이론화에 몰두하였다. 달만, 몰, 슈탈, 슈타인(L. J. v. Stein) 등의 권력과 이성(理性)의 관계, 정치이론의 실천적 영향력의 가능성에 대한 강의들이 그 예이다.

19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프로이센의 정치학자로는 또한 트라이취케(H. v. Treitschke)를 들 수 있다. 그는 권력관계 분석에 몰두했고, 미완성된 다섯 권의 저작 *Deutsche Geschichte im 19 Jahrhundert*(19세기 독일사)에서 19세기 사건에 대한 역사적이고 표준적인 문헌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왕, 귀족, 군대와 관료제를 입헌군주국의 기초로 보았고, 이 형태만이 국가의 단결과 강령함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잘 조직된 군주국은 공화국보다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국에서만 국가권력은 하나의 권리에 입각하게 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이해의 통로인 의회를 거부했다. 트라이취케의 사고는 대학에서 정치학의 전통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정치를 위대한 인간들의 국가기술(*Staatskunst*)로 정의했고, 이에 따라 대학의 정치학은 하위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정치적 상황과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부정되었다. 결과로서 정치학은 학문적인 주장을 포기하게 되었고, 대신에 국가를 영도하는 천부적인 기술로서 정치학이 중시되었다.

독일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이 강했다. 따라서 절대주의 국가의 수립이 늦었고, 절대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역사도 미약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영국의 흡스, 로크나 프랑스의 보댕, 루소와 같은 정치학적 전통의 확립도 미약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역사학과 하겐 술체 교수는 독일과 스코트랜드,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독일의 역사학자 플레스너(H.

Plessner)의 지체국가(verspätete Nation)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슐체 2001, 36, 56-58). 중부, 동부, 북부유럽에서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의 강세는 민족국가의 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을 후진성의 표현으로만 보는 것은 일면적 고찰이다. 오히려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은 황제를 선제후(Kurfürst)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하고 각자의 자율성이 절대주의 국가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절대주의 국가보다 훨씬 민주적, 분권적이었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란트(Wieland 1773~1813)는 이러한 생각을 요약하여 독일의 다양성은 전제 군주적 권력행사에 제동을 걸며 도덕과 풍습의 자연스러운 다양성은 물론이고, 극장이나 대학에 다양한 문화나 인문주의 정신을 촉진시키며,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부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들에 비해 국가의 부를 골고루 배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쉴러와 빌헬름 폰 훔볼트는 독일을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는 새로운 그리스라고 명명하면서 독일은 힘은 없지만 사상이 풍부한 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해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고도로 조직화되고 문명화되었지만 독일인이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던 독일적 문화는 없는 나라-이러한 새로운 로마가 곧 프랑스였다”(슐체 2001, 104).¹⁶⁾

3. 민주주의 교육자로서의 정치학의 역할: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제1차 대전, 1918년의 혁명, 초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은 19세기 독일의 국가에 관한 논의들의 법적, 정치적 기초를 와해시켰다. 동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상황은 학문이 급격히 변화된 형세 속에서 정치와 논쟁하도록 강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경향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법 논쟁 속에서 켈젠(H. Kelsen)의 *Reine Rechtslehre. Einleitung in die rechtswissenschaftliche Problematik*(법학:

16) 독일에서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낭만적 민족주의가 비스마르크의 소독일 통일정책에 걸림돌로 등장했고, 비스마르크와 이들의 대립이 유럽 강대국들의 독일의 야망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킴으로써 비스마르크의 소독일 통일정책에 역설적이게도 도움을 주었다. 민족주의 운동이 현실적인 통일(소독일 통일정책)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이 독일 민족주의 운동과 이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자들의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비스마르크에 비해 매우 맹목적이었으며 비현실적이었다(슐체 2001, 149-159).

법학적 문제에 대한 개론)에 의해 대표되는 법실증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법규범을 법의 기원이나 국가적 토대의 내용과 독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헌법은 법질서의 최상규범이 된다. 그는 헌법, 법률, 입법가, 법정은 행위지침들에 대한 자기규제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는 탈정치화된다. 왜냐하면 법률이 확정되면 행위와 결정은 배타적으로 재판관과 공무원에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경향은 슈미트(K. Schmitt)에서 볼 수 있다. 즉 슈미트는 법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 정치권력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면 법규범은 공허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며, 국가, 법질서, 관료제는 우선 정치에 의해서 구성되며, 정치에 의존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문으로서 정치학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20세기 초의 개혁안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우만(F. Naumann)은 사회-자유주의적(sozial-liberal) 입장에서 자유주의적인 엘리트의 학문적 육성을 선호하였다. 1920년 10월 24일 베를린에 세워진 '정치를 위한 독일 대학 창립재단'(die Gründung der Deutschen Hochschule für Politik)은 민주주의 학교를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중심인물은 호이스(T. Heuss), 나우만(F. Naumann), 볼퍼(A. Wolfer), 헬러(H. Heller), 베르그슈트라세(A. Bergstraesser) 등이다(Mols, Lauth and Wagner 2006, 43).¹⁷⁾ 학교의 설립은 '파리 정치학 에콜'(Pariser Ecole Libre des Science Politique)을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 이 학교의 과제는 다양했다. 학문적, 비학문적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다. 이는 초대 재단 책임자인 예크스(E. Jäckhs)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학(Hochschule)과 전문대학(Fachhochschule) 그리고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통일을 시도했으며, 이는 가능한 국민의 다양한 계층에 정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대학 입학자격을 위한 야간학교의 강좌들도 제공되었고, 이는 기존의 종합대학(Universität) 교과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최초의 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정치학 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과거와 달리 급격히 팽창한 것을 볼 수 있다. 정치학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했다. 외교관, 노조간부, 사회사업가를 위한 세미나들은 정치 전문학교로서의 대학이라는 당시 대학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¹⁸⁾

아카데미한 정치교육은 1927년에서야 시작된다. 철학, 역사, 법학이 중심이었으

17) DHfP는 1948 서베를린에서 재건되며 이후 1949년 설립된 베를린 자유대학(FU)의 Otto-Suhr-Institut로 변화한다.

며, 철학은 정치사상의 흐름이 중심이었고, 역사는 19세기의 역사, 법학은 정치의 법적 기초가 교육의 중심을 형성하였다. 법학에는 국가의 권리, 행정권, 노동권, 시민권을 중심으로 정치의 법적 기초를 강의한 드류(B. Drew)가 대표적이고, 역사에는 마이네케(F. Meinecke)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전적 연구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학 연구경향이 등장하였다. 전후 자유민주당(FDP)을 재건한 호이스와 노이만(S. Neumann) 등이 대표적인 정치학자이다. 정당연구와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는 전쟁부채 문제와 베르사이유 조약에 대한 논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른 지역학적 관심,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소비에트 공화국, 근동과 극동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외에도 *zur dialektischen Demokratie*(변증법적 민주주의)를 저술한 프랜켈(E. Fraenkel), 민주주의와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들에 대한 에세이를 쓴 킬히하이머(O. Kirchheim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당시 철학, 역사, 법학이라는 고전적 정치학적 테마들이 우세했던 경향 속에서 20세기 독일 정치학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던 경험주의적인 정치학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정치학 교수들이 주로 법률가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묘사와 비평 이상의 것을 정치학이 수행할 수는 없었다.

1933년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정치를 위한 독일 대학'의 시도는 막을 내린다. 절반 정도의 학자들이 망명하게 되고, 대학은 우익선동가들에 의해 나치즘적인 학교로 변화된다.

4. 나치즘 시기의 정치적 사고

나치즘 통치기간 동안 정치학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 이는 논쟁적인 질문이다.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지속된 학문적 활동을 든다.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학술단체의 종말과 정치학이 정치적 임무의 수행을 위한 보조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본다. 이 시기에는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형

18) 이러한 전통은 2차 대전 후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 다시 부활한다. 정치교육은 대학에서만 아니라 연방 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비롯한 시민대학, 교회, 노동조합, 정당 산하재단, 연방군 등에서도 행해진다. 오늘날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이념은 계몽, 참여, 민주화이다(황병덕 1997, 89, 97-98).

성중인 민족공동체의 규범적인 지향성에 기초해야만 했다. 프라이어(H. Freyer)가 1933년 제안한 정치적 학기(politisches Semester)는 새로운 나치즘 이데올로기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나치즘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정치적 훈련이 전체 대학을 지배했다. 또한 노동의 에토스가 나치즘 교육의 요소가 되었다. 크릭(E. Krick)이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이다. 구체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던 1936/37년 이후 영토확장 정치(Großraumpolitik)는 학문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인구, 경찰, 국방사회학에 대한 저술들이 등장하고, 선전, 국방정치학, 인종학이 새로운 테마로서 대학에 등장했다. 그리고 미래의 점령지에 대한 이주 정책, 전황보고, 적국연구 등도 등장했다. 정치학자이자 베를린 대학 학장인 식스(F. A. Six)가 이 새로운 임무에 적극적인 헌신을 하였다.

나치즘 독재기에 많은 학자들이 망명을 하였다. 사민당 계열에서는 뢰벤슈타인(K. Loewenstein), 프랜켈, 보수계열에서는 슈트라우스(L. Strauss), 뢰겔린(E. Voegelin)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세대를 이어갈 젊은 학자들도 외국에서 새로운 학문적 시작을 감행하였다. 하이덴하이머(A. J. Heidenheimer), 벤딕스(R. Bendix), 키싱어(H. Kissinger) 등은 미국에서 Political Science를 연구하였고, 프랜켈은 시카고 대학 법학부에서 법학을 하였고, 노이만(F. L. Neumann)은 런던에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작성하였다. 1933년 이미 망명지에서 대학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존슨(A. Johnson)은 이듬해 뉴욕에서 Graduate Faculty der New School을 창립하였다. 여기에서 과거의 독일 대학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모겐타우(H. Morgenthau)와 슈트라우스가 봉직한 시카고 대학과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주축들이 활동한 콜럼비아 대학의 뉴욕 사회 연구소는 망명자들의 새로운 학문적 고향이 되었다.

나치즘 시기 독일 국내의 정치학은 나치즘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상태였고, 정치학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망명지에서 이루어졌다. 망명 독일 학자의 정치학은 미국적 정치학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특히 슈트라우스와 뢰겔린의 규범적, 목적론적 정치학은 미국의 행태주의적, 과학적 정치학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이는 독일 정치학이 전문화된 분과학문이 아니라 철학, 역사학, 법학에 기초하고 있었음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전후(戰後), 신학문으로서 정치학의 등장

1. 정치학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

민주주의 학문이라는 개념은 1945년에서 1959년 사이의 독일 정치학의 특징이다. 이 개념은 서방 연합국가들에서 선호되던 교육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이로써 민주적 가치와 구조들이 교육체계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재정적 도움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후 미국의 도움으로 설립된 베를린 자유대학의 정치학과가 그 예이다.¹⁹⁾ 나치즘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던 귀환자, 즉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자들과 나치즘하에서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남은 국내 망명자들이 이 과업을 수행한 학문적 엘리트들이었다. 전자의 예로는 베르그슈트라세(Freiburg), 프렌켈, 뢰겔린(München), 헤르멘스(A. Hermens; Köln), 후자의 예로는 베버(A. Weber; Heidelberg), 슈미트(C. Schmid; Frankfurt am Main), 에셴베르그(T. Eschenburg; Tübingen), 아벤트로트(W. Abendroth; Marburg)를 들 수 있다(Frantz and Schubert 2005, 14).

정치학의 독일어 표현에 대한 논쟁은 정치학이 전통적인 역사학, 철학, 법학과 다른 독립적인 신학문으로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정치학은 신학문이었다. 제1세대 정치학자들이 공법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경제학, 문헌학자들이었고 그들이 정치학을 독학했다는 점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²⁰⁾ 1954년에 처음으로 베를린의 정치학자인 아이너른(G. Eynern)은 그의 동료 피셔발링(E. Fisher-Baling)의 제안을 받아들여 Politologie라는 용어를 새로이 등장한 학문

19) 전후 미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자유 베를린 대학(Freie Universität)의 자유라는 이름은 이러한 상황에서 붙여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인 독일에서는 한 개 도시에 하나의 종합대학이 있으나 베를린은 분할점령됨에 따라 Humboldt Universität와 Freie Universität 두 개의 종합대학이 존재하는 예외적 도시가 되었다.

20) 정치학을 신학문으로 새로이 정립하느냐 아니면 독일의 전통에 기반하여 정치학을 재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 학문적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격론을 불러 일으켰고, 학회와 학회지의 분리까지 이르게 하였다. 당시 주류가 정치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여기서 전후 독일의 정치학을 신학문으로 일단 규정한다.

인 정치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정치학자들 간에 논쟁을 일으켰던 Politologie라는 용어는 다른 학문과의 구분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Politologie와 다른 용어로 니마이어(G. Niemeyer)와 1934년 간행된 국가학 강의(Staatslehre)의 편집자인 헬러(H. Heller)는 Politikologie를 제안하였다. Politikwissenschaft를 아이너른은 6개의 모음에 비하여 19개나 되는 철자를 가진 어려운 단어라는 점에서 기각한다. 그는 사회학자(Soziologen)와 비슷한 용어인 Politologen(정치학자)를 선호하였으며, 그리하여 Politikologie보다 Politologie라는 용어를 선택했다(Münkler 2006, 13-14).²¹⁾ Politologie라는 용어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볼 때, 정치학은 신학문이었으며, 독립학문으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접학문으로부터 점차 독립적인 학문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미의 Political Science와 프랑스의 Science Politique를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2차 대전 이후 수입된 학문으로서 독일 정치학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베르그슐로셔(D. Berg-Schlosser)와 슈탐멘(T. Stammen)에 따르면 Politikologie, Politologie, Politikwissenschaft 외에도 Wissenschaft von der Politik, Politische Wissenschaft, Wissenschaftliche Politik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니마이어와 아이너른과 달리 Politikwissenschaft가 의미와 발음상의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번역으로 제안한다(Berg-Schlosser and Stammen 2003, 1). 예를 들면 Political Science의 독일어 직역인 Politische Wissenschaft는 정치적 학문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 그리고 Wissenschaftliche Politik은 학문적인 정치라고 오해되어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치학의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0, 70년대 널리 쓰이던 Politikologie, Politologie가 당시의 서베를린 대학생들의 폭동과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점도 Politikwissenschaft가 새로운 번역어로 등장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서방국가들의 점령지에서(1949년 이후 서독) 정치학은 민주적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았다. 소비에트 점령지(1949년 이후 동독)에서는 달

21) 오늘날은 Politikwissenschaft와 Politologie 양자 다 두루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www.hochschulkompass.de.(독일연방공화국 대학입학 관련 자료 홈페이지) 참조. 정치학 용어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Berg-Schlosser and Stammen(2003, 1-2)와 Frantz and Schubert(2005, 13-14)를 참고하였음. Berg-Schlosser와 Stammen에 따르면 Politikologie가 Politologie보다 그리스 원어에 보다 충실한 표현이며, Politologie는 인위적인 용어이다.

랐는데, 이는 나치즘의 등장과 성공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소비에트 점령지역은 파시즘의 등장을 사회-경제적으로 이해했다. 즉 자본가와 대지주의 연합에 의한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제국주의로 이해했다. 이에 반해 서방 점령지역은 특히 미국은 독일의 정치문화를 파시즘 등장의 주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자의 처방은 자본과 토지의 몰수가 되고 후자의 처방은 새로운 민주적 엘리트의 양성이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학문으로서 정치학은 서방 점령지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반면 소비에트 점령지에서는 1945년 이후 대학에서 정치학과가 새로 설립되지 않았다. 동독의 대학개혁은 1950년대 초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맑스-레닌주의적 교육이었다. 개혁은 이전의 교육을 사회정치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학에서의 정치학적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독립적인 정치학을 제도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공산당의 통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80년대 동베를린과 라이프찌히에 있는 연구소들의 개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산당은 정치적 지배의 독점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해석에 대해서도 독점 권력을 행사했다. 198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하거(K. Hager)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고무된 동독학자들의 사회주의 정치학의 수립을 다음과 같은 말로 거부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학은 서독에서 수입된다. 1995년 53명의 교수가 채용되고, 이들은 대부분 서독출신이었다.

한편 서독에서는 1949년 헤센(Hessen) 주정부와 미군정의 재정적 후원 아래 대학에서의 정치학 입문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²²⁾ 참여자는 대부분 대학에 소속된 자들과 교육부 대표자들, 미국정치학회(APSA) 의장, 미군정의 대표자들이었다. 이 기획은 기존 독일 대학 대표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법률가들의 정치학에 대한 저항은 단호하였다. 이들은 정치학을 좌익학문으로 의심했으며,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강의는 이미 국가학과 국법학의 전통에 의하여 수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역사가들 또한 자신을 보다 나은 정치학자로 보았으며, 이들은 현실에 대한 분석이 일상적인 견해에 쉽게 의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1950년에 계속된 회의에는 앞서 밝혔듯이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뿌리인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법학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점이었다. 이들은 대표권을 새로운 학

22) 1950년 초반 최초의 정치학 강의를 시작된 곳도 헤센이었다.

문 정치학에 내어주어야만 했다. 정치학은 처음 10년 동안 통합적인 기능을 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교육 때문이었다.

1949~1950년의 회의에서 우리는 다른 학문보다 훨씬 정치적 상황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학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철학, 역사학, 법학, 국가학에 기초하던 독일 정치학의 전통은 미군정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과업 아래 새로운 분과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통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률학자들의 반발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즉 독일 학자들 간의 논의를 통한 학제의 개편이 아닌 미군정의 정책에 따른 전통적 학제의 변화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20세기 초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가학자들은 국가학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학과가 왜 신설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로운 정치학은 비전통적인 새로운 모델이며, 비독일적이고, 미국적이라는 이유에서 서독의 대학들은 오래 동안 정치학의 도입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군정에 의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정치학이 관련됨으로써 나치시대와 다른 의미에서의 대학의 정치화를 그들은 두려워하였다.²⁴⁾ 이러한 저항 때문에 제도적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1960년 초에 가서야 모든 대학에 해당과목과 연구영역들이 등장하였다.

미국정치학회도 또한 독일 정치학을 세계정치학회(IPSA)의 회원으로 인도하였다. 정치학의 전공분야는 미국정치학회의 규준에 따라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독일정치학회(DVPW: 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Wissenschaft: 1959년 설립)의 전신인 정치학회(Vereinigung für die Wissenschaft von Politik)가 설립되었다.²⁵⁾ 학회는 정치학 연구와 강의의 촉진, 외국과의 학문적 경험과 견해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였다. 초기에 보였던 학문적 정치적 갈등은 드디어 1983년 DGfP(Deutsche

23) 미군정 하에서의 남한에서 행해진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계획안 파동이 생각나는 지점이다. 독일 정치학의 위상 변화는 1970년대의 대학개혁과 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유럽연합의 대학 개혁노력과 이의 실천인 Bologna Process에 의해서 다시 발생한다.

24) 신학문으로서 정치학의 등장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Mols, Lauth and Wagner 2006, 44), (Frantz and Schubert 2005, 14) 참조. 앞서 살펴본 정치학의 이름을 독일어로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외삽적인 정치학의 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25) 의장은 Alexander Rüstow, 명예 회장은 Alfred Weber가 맡았다.

Gesellschaft für Politikwissenschaft)의 분리 설립으로 이어졌다. 양 단체는 격렬한 논쟁을 거친 후 종종 협력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DGfP는 소수파로 머물러 있었으며, 보다 전통적인 학자들이었다. 양 학회 간의 갈등은 학문적이고도 정치적인 것이었다. 1954년 재판을 발행한 학회지(*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는 정치학의 인정과 발전에 기여했다.²⁶⁾ 편집자와 출판사를 둘러싼 다툼은 순조로운 발행을 방해했다. 1960년 독일정치학회는 새로운 학회지(*PVS: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를 발행하였다.²⁷⁾ 한편 ZfP는 뮌헨 대학 정치학과와 연관되어 있었고, DGfP에 관련되어 있었다.²⁸⁾

19세기 말과 나치즘 시기의 대학에서 독일 정치학의 전통은 왜곡, 단절되었다. 그래서 독일 정치학의 재건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DGfP와 관련된 정치학자들은 보다 독일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일의 정치학이 재정립되었지만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독일 정치학 또한 프랑스와 미국의 정치학의 수입에 큰 기여를 하였다. 프랑스의 자유 정치학대학(*Ecole Libre Science Politique*)은 보불전쟁 패배 이후 독일대학의 흠볼트의 교육이념 아래 건설되었고, 독일 대학은 미국의 근대적 대학과 정치학의 설립과정에 모델 역할을 하였다. 미국으로 이민간 베를린 출신의 리버(F. Lieber)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역사와 정치학'을 강의하였고, 그는 북미 정치학의 중요한 건립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늘날 젊은 독일의 정치학자들은 독일 정치학의 전통을 망각하였고, 하르트만(J. Hartmann)은 그의 저서 『정치학의 역사』(*Geschichte der Politikwissenschaft*, 2003)에서 독일 정치학은 미국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45년 이후 정치학은 독일에 수입된 것이 아니라 재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이해다.²⁹⁾ 이러한 점에

26) 편집자는 Otto Suhr, Adolf Grabowsky, Alexander Rüstow이었다. ZfP의 최초의 발행은 Adolf Grabowsky와 Richard Schmidt에 의하여 1908년에 이루어졌다(Mols, Lauth and Wagner 2006, 42).

27) Gert von Eynem, Otto Heinrich von der Gablentz, Karl Dietrich Bracher 등이 편집자였다.

뮌헨은 독일연방 내에서 독립성이 가장 강한 바이에른 주의 수도이다. 오늘날도 기사연(CSU)은 바이에른 주에서만 국회의원 후보를 낸다. 기사연은 헬무트 콜의 기민연의 자매당이며, 지역당이지만 중앙권력의 일부를 장악하기도 하였다. 기사연에 대해서는 김원(2004, 203-219) 참조.

서 볼 때 소수파인 DGfP 관련 학자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이었다. 이들을 소수파에 머물도록 강제한 것은 학문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의 등장은 학제간의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다. 정치학의 방법과 목적, 정치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논쟁의 핵이었고, 이는 학회의 분리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논쟁이 되었다.³⁰⁾

정치학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적, 서술적 연구정향과 철학적, 규범적 연구정향이 맞서고 있었다.³¹⁾ 전자에는 굴란트(A. L. R. Gurland)와 슈탐머(O. Stammer)가 대표적이다. 후자에는 프렌켈, 피젤린, 슈테른베르거(D. Sternberger)가 대표적이다. 슈탐머는 정치를 특정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과 사회그룹들이 공적 영역에서 특정이익과 목표를 다른 개인들과 그룹들의 의도와 목표에 맞서 투쟁과 협약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으로서, 권력획득과 행사를 위한 사회적 행위로 정의한다. 슈탐머는 권력 개념을 보편적 사회현상에까지 확장시켰으며, 정치는 기교와 테크닉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슈탐머는 마키아벨리에서 비롯되는 경험주의적,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렌켈은 정치를 공공선의 합법적 형성으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합법적 권력행사는 규범적 기초 없이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슈테른베르거는 정치를 품위 있는(*gesitteten*) 권력행사라고 정의한다. 즉 이들은 정치권력은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질서의 이성적 형성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적 정치행위자의 권력지향은 집합적 세계에서는 병리적 현상

29) 19세기 미국의 대학제도는 유럽, 특히 독일을 모델로 하였다. 정치학의 미국화는 1903년 미국정치학회의 등장과 시작된다. 20세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과 한나 아렌트, 레오 스트라우스 등 망명 독일학자들은 미국에서 정치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치학의 설립과 전개과정에서의 독일의 영향에 대해서는 Frantz and Schubert(2005, 19).

30) 이 분열은 독일 정치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분열이라는 점에서, 이권싸움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분열이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방 이후 전통적 정치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신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수용과 관련된 한국 정치학의 건립을 둘러싼 논쟁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격렬한 논쟁은 매우 부러운 현상이다.

31)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차이는 독일의 망명 정치학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미 등장하였다.

이며, 개인의 행위는 비사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양자의 정치에 대한 관점은 상이하다. 전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경험론적 현실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정치의 공동체성과 규범성을 중시한다.³²⁾

앞서 밝혔듯이 독일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발전이 미약한 나라였다. 이는 지체국가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독일의 봉건제가 강고했음에 기인하기도 하고, 독일적 전통에는 개인주의가 낮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정치관은 독일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미군정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학은 자유주의적 전통을 대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민주주의는 미국적 정치질서를 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논쟁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공동체주의자들 전부가 비민주주의자가 아니듯이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초하지 않은 민주주의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정치관을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는 미국적 정치관에 후자는 독일의 전통적 정치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사상의 부재 내지 결핍을 민주적 전통의 부재로 일반화하기보다 영미적 전통과 다른 정치적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이해라 할 것이다.³³⁾

32)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방법론에는 철학적, 규범적 방법론 외에도 헤겔과 맑스로부터 비롯되는 변증법적, 역사적 방법론을 들 수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되는 철학적, 규범적 방법론은 변증법적, 역사적 방법론과 더불어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법론 논쟁은 전통적인 앞의 두 가지 방법론과 미국의 영향에서 비롯된 경험적, 서술적 방법론 사이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철학적, 규범적 방법론이 무의미한 사회학과 달리 정치학에서 이 방법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학은 근대학문인 반면 정치학은 그 연원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문헌을 참조(Berg-Schlosser and Stammen 2003, 45-87; Mols, Lauth and Christain 2006, 292-301; Thöndl 2005, 43-56; Frantz and Schubert 2005, 27-37).

33) 자유주의는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자유주의는 매우 비민주적이었던다는 점은 기억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공동체성에 기초한 고대 원시민주주의의 전통, 신성로마제국의 민주적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서유럽의 절대주의 국가체제에 비해서 훨씬 민주적 체제라 볼 수 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독일 민족주의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파시즘은 이 자부심을 왜곡, 악용하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독일의 특수성이나? 서유럽 문명의 일반적 수용이나?'를 들

2. 제도적 확립과 이념적 분화: 60~80년대

신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등장으로 인하여 학제간의 논쟁만이 아니라 전문화 경향도 생겨났다. 독일의 정치 시스템, 국제관계,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 비교정치학이 거의 모든 정치학 연구기관에 등장하였다. 또한 지역적인 학풍이 형성되었다. 뢰블린은 뮌헨에서 규범적인 정치학을 기초하였고, 쾰른은 헤르멘스(F. Hermens)의 지도하에 헌법과 선거법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빌덴만(R. Wildenmann)에게 계승되어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만하임 학파로 발전한다. 슈테른베르거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정치사상사와 의회주의 문제에 몰두하였다.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정치학은 프라이부르크의 베르그슈트라세에 의해 강조되었다. 마르부르크 학파는 구체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특성을 가졌다기보다 특정 테마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적 의지의 형성과, 나치즘의 지배구조의 건립과 기능방식 또는 나치즘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노동운동이 주요 연구테마였다.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반민주적인 위험성의 제거를 비롯한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라는 마르부르크 학파의 급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경향은 이들의 지적 활동의 기초였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성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을 기초로 하여 사회학에서의 전통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개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독일에서의 사회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망명이 끝난 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연구소는 독일 사회학의 경험적 사회연구의 미국적 표준에의 연결을 위하여 존재하였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귀국 후의 5년간의 사회학적 간행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952년과 1954년 아도르노는 경험적 사회연구를 위한 표준적 논문을 두편 발표한다.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관점은 단지 이론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할 데이터들의 보편적인 연관성이라는 정도에 머물렀다. 1960년대에 가면 경험적 사회연구로부터의 탈피가 시작된다. 아도르노는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는 결합될 수

러싼 정치적 논쟁은 종식되었다. 독일은 이제 유럽연합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를 비롯한 보다 동쪽에 자리잡은 슬라브 국가들에서 여전히 나타난다(슐체 2001, 347-356).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도르노는 사회학적 이론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로 도출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사실자체가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은 사회의 적대적 성격에 관한 지식을 우선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방법론상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문간 협력적인(interdisziplinären), 통합적인 설명방식은 정치경제학, 심리분석, 문화비판,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많은 정치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내용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 학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가르친 허버트 마르쿠제였다. 마르쿠제의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결합과 거기서 도출되는 발전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해방의 전망은 68운동에 정치적으로 강한 영감을 주었다. 그의 영향력은 1980년대 초 하버마스에 의해서 해체되었다. 소통행위 이론(Die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에서 하버마스의 언어이론적 사유의 사회이론에의 적용은 경제학에서 사회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을 가져왔고, 또한 사회과학 이론 형성의 기초로서의 철학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학 발전을 위한 1960년대의 대학의 개혁은 1970년대의 방법론적 논쟁을 야기했다. 이 논쟁은 주로 50년대, 60년대 지역적으로 형성된 학파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해결방안은 학문세계에서 정치학의 위상변화였다. 1970년대의 대학 구조 개혁에 따라 정치학은 사회학, 사회심리학, 언론학 같은 사회과학 분야와 결합되었다. 정치학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쟁이 있었다. 근대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에 대한 이해와 미국 행태주의의 과학주의적 영향력은 경험적 사회연구에 대한 강화된 인식을 가져왔다. 설문지를 갖춘 인터뷰와 같은 비교적이고, 양적인 연구방법, 자료분석, 통제된 실험 등이 등장했다. 이 분야의 선두는 선거연구와 정치적 입장의 분석이었다. 60, 70년대의 정치학과는 학생과 교수의 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60년 정치학과와 규모는 18개 대학에 24명의 교수가 전부였으며 이 중 10명이 베를린 자유대학(FU)과 관련된 '정치학 강의 연구 센터(Zentrum politikwissenschaftlicher Lehre und Forschung)' 소속이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 급속하게 정치학 교수의 수가 증가하여 1970년에는 63명, 1975년에는 133명, 1985년에는 278명이 되었다. 85년 이후 증가세는 다소 감소하였고, 통일 이후 2000년 독일의 정치학 교수는 344명에 이르게 되었다(Frantz and Schubert 2005, 20).³⁴⁾ 양적인 성장은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야기했으며, 60년대 말의 학생운동의 분위기는 정치학 연구방법 간의 논쟁을(규범적, 존재론적

연구, 경험적 분석적 연구, 역사적 비판적 연구) 정치적 논쟁으로(복고적 성향, 체제유지적 성향, 진보적 성향) 이끌었다. 좌파적 경향은 기존의 부르조아 정치학을 무비판적인 지배자의 학문으로 비판하면서 저항 학문으로서 비판적 정치학을 내세웠으며, 이들은 반대자들에 의하여 학자로서의 직업시장에서 배제되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치학과의 육성에 적극적 지원을 해오던 국가는 국가적 지원을 재검토 하기에 이르렀다. 이 위기에 맞서 70년대 후반에 보다 정치적으로 온건하고 학적인 열정에 찬 젊은 교수들은 정치학의 학문적 공고화와 정치적 자문자로서의 정치학의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 정립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정치학은 경험적인 작업과 이론적인 설득력이 있는 근대 사회과학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정치학의 사회과학화 과정에서 정책학이 정치학의 주요한 분야로 등장하였다.³⁵⁾

3. 21세기의 독일 정치학: 세계화와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노력

1950년대와 60년대 독일 정치학은 고유의 방법론과 대상을 갖는 학문이 아니라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치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학문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학은 민주적 가치를 전파하고 이의 작동방식을 관찰하고, 비평을 수행하며, 또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후의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한 정치학의 정체성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었다. 그러므로 60년대 후반의 정치학의 전문화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치학에 대한 기대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즉 정치학에 여전히 지도적인 역할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서 정치학에 맞서 자문자로서의 정치학의 역할이 갈등의 구조였다. 실제적인 정치와 정치학 사이의 간격은 협소했고, 유동적인 것이었다. 정치에 깊숙이 연루된 정치학은 자신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였다. 정치학의 올바른 위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34) 초기 정치학 담당교수의 적은 숫자와 미국의 지원 하에 세워진 베를린 자유대학의 정치학과가 정치학과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서독에서 정치학 형성과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35) 1970년에는 유럽 정치 연구회(ECPR: European Council of Political Research)가 창설되었다.

는 이상적인 위상의 확정이 불가능한 실용적 학문이 갖는 특성 때문이었다. 정치와의 거리에 대한 논쟁과, 정치학의 적절한 자기이해의 확립을 위한 논쟁이 활발해졌다. 정치학의 규범적 정향과 경험적 정향 사이의 긴장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새롭게 판단되어졌다. 이는 정치학의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 특성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정치학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정치적인 요구들에 만족스럽게 대응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제들은 학문간 협력 연구(interdisziplinären)와 다양한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고, 여기서 다양한 학문의 조직자의 자격이 정치학에 부과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학은 이 위치를 두고 법학과 경쟁관계였고, 정치학은 열세에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조정역할의 후퇴와 정치적 교섭과정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 다수의 시민들의 등장과 함께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의 우세가 약화됨에 따라 법률가들의 특권적 지위도 잠식되었고, 미국에서처럼 정치학의 특수한 역할의 의미가 커졌다. 정치적 결정과정과 실행과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규칙제정자, 절차의 주재자, 결과의 보증자, 결정하는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지위의 후퇴와 국가, 시장지향의 기업,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의 상호행위는 정치과정의 변환을 가져왔다. 이는 정치의 탈법률화와 정치학의 영향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사회와 학문체계 내에서의 미래의 정치학의 위상은 정치학자들의 다수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비평가로서의 역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문제들의 해결에 결합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Bologna Process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제도의 변화는 독일 정치학자들의 양성과정에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매 2년마다 총 6회 개최된 Bologna Process는 유럽연합이 세계화의 여파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 프로그램이다.³⁶⁾ 개혁 프로그램은 독

36) 회의 개최는 볼로냐(1999), 프라하(2001), 베를린(2003), 베르겐(2005), 런던(2007), 벨기에 로이벤(2009)에서 총 6회 개최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 이전에 1998년 소르본느 대학의 800주기 기념축제에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은 대학제도 개혁에 합의하였다. 이를 소르본느 선언이라고 한다. 소르본느 대학 800주년 기념축제에서 대학제도를 개혁하기로 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국내의 연구로는 김상원(2007), 오정은(2008)이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세계화에 대한 유럽대학의 제도개혁이라는 중요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미진하다.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 대학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혁의 내용은 학사졸업제의 설립, 계수화된 학점제, 박사과정을 비롯한 수학기간 단축, 학제간 연구의 강조, 학업과정의 유동성 증가, 부분적인 등록금 징수 등이다.³⁷⁾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학자 양성과정의 변화를 뜻한다.

- 1) 학사/석사 제도의 도입(Bachelor und Master)³⁸⁾
- 2) 계수화 된 학점의 도입(ECTS)
- 3) 질적 보장: 평가와 전권위임(교육부가 아닌 전문위임 기관이 담당)
- 4) 국가 자격제: 작업부담, 수준, 학업결과, 자격, 프로필을 정의한다. 투명성 재고, 교육 과정의 비교가능성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형성, 평가, 전권위임을 위한 관련사항들과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 보장을 지원한다.
- 5) 유동성 촉진: 50% 정도의 학생들의 외국유학과 30% 학생이 적어도 한 학기를 외국대학에서 수학함을 목표로 한다.
- 6) 박사과정: 3~4년의 수학기간, 학제적 연구의 강화, 직업적 능력 강화
- 7) 평생교육: 미래지향적 교육, 경쟁력 있는 유럽경제를 위한 평생교육
- 8) 사회적 차원: 능력 있는 대졸자의 양성과 대졸자들의 취업기회 강화³⁹⁾

IV. 결론

지금까지 독일 정치학의 특성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독일 대학제도의 변화와

37) 오늘날 독일 대학은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 유로에서 900유로 가까이 받는 주들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에 한 학기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여전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변화이다.

38) 인문학 분야에서 독일대학 구제도에는 학사졸업이 없으며, 석사졸업(Magister)이다. 이는 이전의 무상교육제도와 맞물려 졸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2008/9년 겨울학기 기준으로 이미 75%의 교과과정이 학사, 석사제로 바뀌었다. 독일 교육연구부 홈페이지 www.bmbf.de(검색일: 2009. 5. 27).

39) "Der Bologna-Prozess." www.bmbf.de/de/3336.php를 참고(검색일: 2009. 5. 27).

더불어 살펴보았다. 정치적 시스템의 다양한 변동을 경험한 독일정치의 와중에서 독일 정치학과 독일 대학제도는 변화하였다. 독일 정치학은 2차 대전 후와 60~70년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 정치학과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모색하였다. 오늘날 독일 정치학은 세계화의 압력과 이에 따른 대학제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치학이 어떻게 자신들의 전통과 새로운 개혁을 조화시키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문학과 정치학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미래의 학자들을 어떤 교육과정을 통하여 육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과 정치학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2차 대전 후의 정치학 도입시기와 60~70년대 대학개혁에 따른 정치학 방법론 논쟁에서 보았듯이 독일 정치학의 전통적 연구영역과 방법론에 대한 외부적 압력에 의한 도전은 상당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정치적, 제도적 변화들이 전통적으로 법적, 철학적, 역사적 정치학 연구경향이 우세하던 독일 정치학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점은 경험적, 분석적 경향과 규범적, 통합적 연구정향 간의 철학적 긴장, 법학, 역사학, 철학의 영역에서 정치학이 연구되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전통과 미군정의 영향 아래 등장한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서 정치학의 갈등, 학제간 연구에서 정치학의 위상, 현실정치와 정치학의 관계가 주요한 논쟁점이다. 독일 정치학은 독일 역사 속에서 중상주의 정책의 이론적 보조자로서, 통치이념의 교사로서, 민주주의의 교사로서, 나치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도구로서,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자, 정책의 입안자로서 등장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영역의 후퇴와 정치과정의 복잡화는 정치학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치적 논쟁거리이며, 평가의 상이함은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독일 정치학의 인문학적 연구전통과 독일 정치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점에서 독일 정치학회를 중심으로 독일 정치학의 역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⁴⁰⁾ 미국 정치학의 강세에 따른 정치학 연구방법의 획일화에 대한 경고는 1970년대의 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라 오늘날 독일 정치학, 한국 정치학을 비롯한 정치학 일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⁴¹⁾

올해는 한국정치학회가 발족한지 56년, 정치학회보가 발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국 정치학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정치와 관련 학회는 24개이다.⁴²⁾ 학회의 분립은 국제정치, 지역연구, 지방자치, 정치사상, 교육정치, 커뮤니케이션 정치 등 정치학 연구분야의 특화, 지방 정치학회의 분립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학회의 전문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학회들의 중복의 극복, 50~60년대 독일 정치학이 보여주듯이 지역적 차이에 기초한 지방학회를 넘어 방법론적, 정치적, 철학적 차이를 특징으로 하는 학파와 학풍의 형성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 정치학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성찰은 60년대 말 구범모와 민병태에 의해 시도되었다(구범모 1967; 민병태 1969). 이후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학술대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⁴³⁾

독일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의 역사는 미군정 하에서 정치학의 수입기, 제도화기, 이념적 분화기, 세계화의 도전으로 비슷한 경로를 밟아 왔다. 독일 정치학의 역사와 전개과정에서 학회의 분립까지 이어진 자국의 정치학적 전통과 수입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관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 정치학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논쟁, 이념적 논쟁, Bologna Process를 통한 독일 정치학자들과 독일 대학의 세계화에 대

40) 각주 11의 참고문헌 참조.

41) “우리는 정치학 방법론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구분을 통해 하나를 지양해 버릴 수 없는 복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늘날 정치학은 다양한 방법론들의 병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현대 사회과학 일반의 상황의 반영이다.” (Berg-Schlosser and Stammen 2003, 46)

42) 독일의 정치 관련 연구소는 22개, 관련 학회는 12개이다. Winfried Schröder가 편집한 정치학 관련 포털사이트, 정치학 연구소, 정치학회, 정치학 관련 문서와 자료, 정치학회지에 대한 정보는 Münkler(2006, 680-716)을 참조할 것.

43)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정복(1999), 배병삼(2003), 학술단체협의회(2003), 이상익(2004), 김영명(2006). 학술대회로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 모색.’(2007. 11. 30);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한국정치사상학회 주최, ‘민意的 수렴: 동양 전통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2009. 3. 21)를 들 수 있다.

한 대응 등은 한국 정치학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숙고해야 보아야 할 모습들로 생각된다.

투고일 2008년 4월 22일

심사일 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5일

참고문헌

- 구범모, 1967.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2집, 7-59.
- 김계수 외, 1987. 『한국과 정치학』. 서울: 일조각.
- 김상원, 2007. "4부 문화: 볼로냐 프로세스 통해서 보는 실용인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인문학의 "문화적 전환"에서 문화산업까지."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독어교육』 제39권, 353-378.
- 김영명, 2006.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오름.
- 김원, 2004. 『독일문화의 이해』.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민병태, 1969. "우리 정치학계의 현시점." 『한국정치학회보』 3집, 5-8.
- 레오 스트라우스 · 조셉 크랍시 저 · 이동수 외 역, 2007. 『서양정치철학사 II』. 서울: 인간사랑.
- 로버트 니스벳 · C.B. 맥퍼슨, 1997.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배병삼, 2003. "한국 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37집 2호.
- 버트란트 러셀 저, 현철하 역, 1995. 『서양철학사』. 서울: 대한교과서.
- 손호철, 2006.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서울: 이매진.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2006.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양승태, 1995. "한국 보수주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13-26.
- 오정은, 2008. "EU 집행위원회의 볼로냐 프로세스 참여: 유럽고등교육정책의 유럽화."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26권 제2호, 317-336.
- 유홍림, 2003. 『현대정치사상 연구』. 서울: 인간사랑.
- 이국영, 1999. "현대 보수주의의 사회구상: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32집

4호, 47-70.

이민호. 2003. 『새 독일사』. 서울: 까치글방.

이상익. 2004.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서울: 심산.

이정복. 1999. "한국 정치학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정치연구』 8·9호 합병호.

프란시스 웨퍼 저. 김영재 역. 1997. 『이성에서의 도피』. 서울: 생명의 말씀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로운 사회질서에서의 원리." 한스 코온 외 지음. 문학과 사

회연구소 역. 1983. 『정치학의 이데올로기』. 서울: 청하. 79-110.

하겐 술체 저. 반성완 역. 2001. 『새로 쓴 독일역사』. 서울: 지와 사람.

학술단체협의회 편. 2003. 『우리 학문 속의 미국』. 서울: 한울.

황병덕. 1997. "독일정치 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 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

『유럽연구』(봄). 87-111.

Berg-Schlosser, Dirk and Theo Stammen. 2003. *Einführung in die Politikwissenschaft*. 7. aktualisierte Auflage. München: Verlag C. H. Beck.

Bleck, Wilhelm. 2002. *Geschichte der Politikwissenschaft in Deutschland*. München: Verlag C. H. Beck.

_____. 2005. "Geschichte der Politikwissenschaft." Frantz, Christiane and Klaus Schubert, *Einführung in die Politikwissenschaft*, 13-24. Münster: LIT Verlag.

Frantz, Christiane and Klaus Schubert. 2005. *Einführung in die Politikwissenschaft*. Münster: LIT Verlag.

Göhler, Gerhard and Bodo Zeuner. eds. 1991. *Kontinuitäten und Brüche in der deutschen Politikwissenschaft*. Baden-Baden: Nomosverlagsgesellschaft.

Hartmann, Jürgen. 2003. *Geschichte der Politikwissenschaft: Grundzüge der Fachentwicklung in den USA und in Europa*. Opladen: Vs Verlag.

Kelsen, Hans. 1994. *Reine Rechtslehre. Einleitung in die rechtswissenschaftliche Problematik*. Aalen.

Mols, Manfred. 2006. "Phasen der Entwicklung des Faches." M. Mols, H. J. Lauth and C. Wagner, eds. *Politik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Ferdinand Schöningh.

Mols, Manfred., Hans-Joachim Lauth, and Christain Wagner, eds. 2006. *Politikwissenschaft: Eine Einführung*. 5 Auflage. Paderborn/München/Wien/Zürich: Ferdinand Schöningh.

Münkler, Herfried. 2006. *Politikwissenschaft: Ein Grundkurs*. 2 Auflage. Hamburg: Rowohlt Enzyklopädie.

Seibel, Wolfgang, M. Medick-Krakau, H. Münkler, and M. Th. Greven, eds. 1997. *Demokratische*

Politik — Analyse und Theorie: Politikwissenschaf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Thöndl, Michael. 2005. *Einführung in die Politikwissenschaft*. Wien/Köln/Weimar: Böhlau Verlag.

인터넷 자료

독일 교육연구부 홈페이지. 2009. "Der Bologna-Prozess." www.bmbf.de/de/3336.php (검색
일: 2009. 5. 27)

ABSTRACT

The Formation of German Political Science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Focusing on its Relation with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System

Saon-Yang Choi |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ly, in Germany, political study was usually a field within the faculty of law, philosophy, history or sociology. Political science became an independent faculty in German universities after World War II, und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 The sudden introduction of political science in German universities by the political power triggered heated debate and discords among the scholars. The controversy on the correct translation of political science in German, the confrontation between empirical, descriptive research and philosophical, normative research in the 1950's, and the debate on political methodology in the 1970's on behavioristic and scientific research, introduced and influenced by social science in the US, are examples. Political science, one of the most sensitive fields to political changes, often finds itself at the center of dispute concerning its academic identity. Political changes in Germany and ensuing reforms in the university system triggered on-going debates on the identity, methodology of political science and the academic relationship with other faculty. The radical reform of the university system due to the Bologna process being pursued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provoked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raditional integrated and philosophical research and the empirical and specialized scientific research. German political science today faces the challenge of finding a new identity. It is worth to take note that this is not a challenge confined to German political science.

Keywords: Germa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identity of political science, globalization, reform of the university system